

# 의학계열 학력평가 논술고사 예제문제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	--	--	----	--

##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1. 답지의 원고란에는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현이나 불필요한 표기를 하지 마십시오.
2. 답안은 제목을 쓰지 말고 바로 본문을 쓰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십시오.
3. 답안은 한글 맞춤법에 맞게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200자 내외로 작성하십시오.
4. 답안이 1,100자 미만이거나 1,300자 초과 시에는 감점처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흑색 필기구(볼펜류 또는 만년필)로 작성하되, 수정액/수정테이프 사용 시 0점 처리합니다.
6. 연필로 작성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에도 0점 처리합니다.

다음의 [제시문 1]은 과학의 개념과 과학적 사유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제시문 2]는 연금술에 관한 설명, [제시문 3]은 설화, [제시문 4]는 소설의 한 대목이다.

[제시문 1]을 잘 읽고 과학적 입장에서 [2], [3], [4]의 제시문 속에서 설명되고 있는 비과학적 혹은 불가사의한 사항들을 과학적인 사고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라.

## [제시문 1]

과학은 어떤 가설 위에서 일정한 인식목적과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세워진 광범위한 체계적 지식을 가리킨다. 동시에 이제까지 아무도 반증(反證)하지 못한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의 체계이다.

과학의 특징은 가설(假說)이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가설은 검증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설은 측정할 수 있는 사물의 관찰을 통해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가설이 검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감기는 정신적 에너지가 교란되어 생긴다’는 말은 과학적인 가설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에너지는 보이지도 않고 측정할 수도 없으며 물질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초자연적 힘의 간섭이 요구되는 가설은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없다. 어떤 것이 초자연적이라면 자연의 법칙에 구애되지 않으며, 그것은 자연에 대한 현재의 이해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과학적 가설은 또한 논파(論破)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는 가설은 논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추위에 노출된 사람이 추위로부터 보호된 사람보다 감기에 더 잘 걸리지 않는다는 관찰처럼 그 가설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나쁘다’와 같은 가치판단에 속하는 가설은 과학적이

지 않다. 이는 사람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술들을 논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의 사유방법은 이와같은 과학의 개념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 [제시문 2]

연금술(鍊金術;alchemy)은 고대 이집트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납이나 구리 같은 비금속(卑金屬)을 금이나 은 등의 귀금속(貴金屬)으로 변환시키려 했던 것을 말한다.

고대 점성학자(占星學者)들은 자연세계의 대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인간의 소우주에 반영되고, 그 반대로도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즉 적절한 점성학적 영향을 받게 되면 마치 인간의 영혼이 천상에서 완전해지는 것과 같이 납이 금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었다.

연금술사는 아마도 그의 실험실에서 비금속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오래 가열하여 일단 소멸시키고는 더 나은 상태의 금이나 은으로 소생시키는 작업을 통해 질적 변환을 시도하려 했을 것이다.

경험이 풍부한 연금술사들은 나름대로의 수많은 실험 기구를 사용하고 실험 방법을 고안했다. 그리고 직업상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실험상의 비법(秘法)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인 물질들에 대해 비밀스럽고 상징적인 이름들을 많이 고안해내기도 하고, 자신만의 비법을 숨기기 위하여 고대의 신·영웅·왕 또는 철학자들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 당시의 가치관은 기술을 중시하기보다는 신비주의적 성향을 강조했다. 따라서 연금술에 관한 논의들도 전반적으로 모호성을 가지면서 한층 더 은밀해 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중국의 연금술사들은 금 자체뿐 아니라 사람에게 불로장생(不老長生)을 부여하는 힘을 가진 연금약액(鍊金藥液;elixir)으로 다른 금속을 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 실용적인 모든 기술을 희생하면서까지 비법에 치중하는 흐름을 보여 주기도 했다.

예컨대, 연단술(煉丹術)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늙지 않고 오래살 수 있는 단(丹)이라고 하는 환약(丸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인도에서의 연금술도 결과적으로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고, 아랍의 연금술도 그 기원에 있어서 중국이나 인도의 연금술만큼이나 신비로운 색채를 드러내었다. 그들은 현자(賢者)의 돌(philosopher's stone)로 간주되는 신비한 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기까지 했다.

### [제시문 3]

제21대 비처왕-혹은 소지왕이라고도 쓴다-즉위 10년 무진(488)에 왕이 천정전에 행차했다.

이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더니 쥐가 사람처럼 말을 했다.

“이 까마귀가 가는 곳을 살피시오.”-혹은 말하기를 신덕왕이 흥륜사에 행향(行香)하려 할 때, 길에서 여러 쥐들이 꼬리를 물고 있음을 보고, 괴상히 여겨 돌아와서 점을 치니, 이튿날 먼저 우는 까마귀를 찾으라 했다 한다. 이 설은 잘못이다.

왕이 기사에게 명령하여 뒤쫓게 했다. 기사가 남쪽으로 피촌-지금의 양피사촌이니 남산의 동쪽 기슭에 있다-에 이르러, 두 돼지가 싸우는 것을 한참 동안 보고 있다가, 문득 까마귀의 간 곳을 잃어버리고 길가에서 헤매고 있었다.

이 때 한 노인이 연못 속에서 나와 글을 올리니 걸봉에는 이렇게 씌여 있었다.

“이를 떼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고, 떼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

기사가 돌아와서 왕에게 드리니 왕은 말했다.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떼어보지 않고 한 사람만 죽는 것이 낫겠다.”

일관이 아뢰었다.

“두 사람이란 서민이요, 한 사람이란 왕입니다.”

왕은 그렇게 여겨 떼어보니 그 글에 “금갑(거문고갑)을 쏘라”고 했다.

왕은 곧 궁에 들어가서 거문고갑을 보고 쏘니, 거기에는 내전에서 분향수도하던 중이 궁주(고려때는 妃嬪 또는 왕녀의 칭호로 썼으나 여기서는 신라 때 비빈을 이른 말)와 몰래 간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사형을 당했다.

이로부터 나라 풍속에 해마다 정월 상해·상자·상오일에는 모든 일을 조심하여,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고, 15일을 오기일이라 하여 찰밥으로 제사지냈는데, 지금까지도 이를 행하고 있다. 이 언에 이것을 달도라고 하니, 슬피하고 근심해서 모든 일을 꺼려 금한다는 말이다. 그 연못을 이름하여 서출지라 한다. ([三國遺事] 射琴匣·거문고갑을 쏘다, 이재호 옮김)

\* 원문

第二十一 毗處王 一作炤知王 卽位十年戊辰 行御天泉亭 時有烏與鼠來鳴 鼠作人語云 此烏去處尋之 或云 神德王欲行香輿輪寺 路見衆鼠舍尾 怪之而還占之 明日先鳴烏尋之云云 此說非也 王命騎士追之 南至避村 今壤避寺村 在南山東麓 兩猪相鬪 留連見之 忽失烏所在 徘徊路傍 時有老翁 自池中出奉書 外面題云 開見二人死 不開一人死 使來獻之 王曰 與其二人死 莫若不開 但一人死耳 日官奏云 二人者庶民也 一人者王也 王然之開見 書中云 射琴匣 王入宮 見琴匣射之 乃內殿焚修僧 與宮主潛通而所奸也 二人伏誅 自爾國俗 每正月上亥上子上午等日 忌愼百事 不敢動作 以十五日爲烏忌之日 以糲飯祭之 至今行之 俚言 怛切 言悲愁而禁忌百事也 命其池曰書出池

#### [제시문 4]

만적이 스물 세 살 나던 해 겨울에 금릉 방면으로 나갔다가 전날의 사신(謝信)을 만났다. 열세 살 때 자기 어머니의 모해를 피하여 집을 나간 사신이였다. 그리고 자기는 이 사신을 찾아 역시 집을 나왔다가 그를 찾지 못하고 중이 된 채 어느덧 꼭 십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난 것이다. 그러나 그때 다시 만난 사신을 보고는 비록 속세의 인연을 끊어버린 만적으로서도 눈물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착하고 어질던 사신이 어찌면 하늘의 형벌을 받았단 말이고, 사신은 문둥병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만적은 자기의 목에 걸렸던 염주를 벗겨서 사신의 목에 걸어 주고 그 길로 곧장 정월사에 돌아왔다.

그때부터 만적은 화식(火食)을 끊고 말을 잃었다. 이듬해 봄까지 그가 먹은 것은 하루에 깨

한 접시씩뿐이었다(그때까지의 목욕 재개는 말할 것도 없다).

이듬해 이월 초하룻날 그는 법사 스님(운봉선사)과 공양주 스님 두 분만을 모시고 취단식(就壇式)을 봉행했다. 먼저 법의를 벗고 알몸이 된 뒤에 가늘고 깨끗한 명주를 발끝에서 어깨까지(목 위만 남겨 놓고) 전신에 감았다. 그리고는 단위에 올라가 가부좌(跏趺坐)를 개고 앉자 두 손을 모아 합장을 올렸다. 그리하여 그가 염불을 외우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곁에서 들기름 향아리를 받들고 서 있던 공양주 스님이 그의 어깨에서부터 기름을 들고 부었다.

기름을 다 붓고, 취단식이 끝나자 법사 스님과 공양주 스님은 합장을 올리고 그 곁을 떠났다.

기름에 곁은 만적은 그때부터 한 달 동안(삼월 초하루까지) 단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가부좌를 갠 채, 합장을 한 채, 숨쉬는 화석이 되어 가고 있었다.

이때에 한 번씩 공양주 스님이 들기름 향아리를 안고 장막(帳幕-흰 천으로 장막을 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면 어깨에서부터 다시 기름을 부어 주고 돌아가는 일밖에 그 누구도 이 장막 안을 엿보지 못했다.

이렇게 한 달이 찬 뒤, 이날의 성스러운 불공에 참여하기 위하여 산중의 스님들은 물론이요, 원근 각처의 선남 선녀들이 모여들어, 정원사 법당 앞 넓은 뜰을 메꾸었다.

대공양(大供養-燒身供養을 가리킴)은 오시 초에 장막이 걷히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오백을 헤아리는 승려가 단을 향해 합장을 하고 선 가운데 공양주 스님이 불 담긴 향로를 받들고 단 앞으로 나아가 만적의 머리 위에 얹었다. 그와 동시에 그 앞에 합장하고 선 승려들의 입에서 일제히 아미타불이 불려지기 시작했다.

만적의 머리 위에 화관같이 씌워진 향로에서는 점점 더 많은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미 오랜 동안의 정진으로 말미암아 거의 화석이 되어 가고 있는 만적의 육신이지만, 불기운이 그의 숨골(정수리)을 뚫었을 때는 저절로 몸이 움칠해졌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그의 고개와 등가슴이 조금씩 앞으로 숙여져 갔다.

들기름에 곁은 만적의 육신이 연기로 화하여 나가는 시간은 길었다. 그러나 그 앞에 선 오백의 대중(승려)은 아무도 쉬지 않고 아미타불을 불렀다.

신시(申時) 말(末)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그러나 웬일인지 단 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만적의 머리 위로는 더 많은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염불을 올리던 중들과 그 뒤에서 구경하던 신도들이 신기한 일이라고 눈이 휘둥그래져서 만적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머리 뒤에는 보름달 같은 원광이 썩어져 있었다.

이때부터 새전이 쏟아지기 시작하여 그 뒤 삼 년간이나 그칠 날이 없었다. 이 새전으로 만적의 타다가 굳어진 몸에 금을 썩우고 금불각을 짓고 석대를 쌓았다…….

(김동리의 소설 <等身佛>에서)